

다니엘서 - 번호 27

또 다른 비밀스러운 꿈

Jeff Pippenger

2023-12-22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은 '끝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때 두 부류의 예배자들이 1798년에 봉인이 풀린 '지식의 증가'를 살펴보도록 부름을 받는다. 그때 다니엘은 또한 벨드사살로 지칭되며, 이는 이름의 변화가 예언적으로 언약 관계를 표시하기에 그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인정했고, 과거 다니엘과의 경험에 비추어 '어떤 비밀도' 다니엘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꿈의 비밀은 실제로 다니엘을 번민하게 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줄을 내가 알고, 어떤 은밀한 것도 네게는 어려움이 되지 않으므로, 내가 본 꿈의 환상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머리로 본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 한가운데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높이가 매우 컸더라.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졌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며 그 모습은 온 땅 끝까지 보였더라.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그 안에는 모든 이를 위한 양식이 있었고, 들의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그늘을 얻었으며, 공중의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었고, 모든 육체가 그것으로 먹을 것을 얻었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리로 본 환상 중에 보니, 한 파수꾼 곧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더라. 그가 크게 외쳐 이같이 말하였다.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그 가지들을 잘라 내며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흩어 버려라. 짐승들은 그 아래에서 물러가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 두되, 쇠와 놋으로 동여매어 들의 연한 풀 가운데 두고, 하늘 이슬에 젖게 하며, 그 뭍이 땅의 풀 가운데 있는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고, 그 위에 일곱 때가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파수꾼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결정은 거룩한 자들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는 살아 있는 자들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시고, 그 위에 가장 낮은 자를 세우시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꿈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노라. 이제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리지 못하였으나, 너는 능히 할 수 있나니,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음이라. 그때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그의 생각이 그를 번민하게 하니,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과 그 해석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하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해석이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 4:9-19.

다니엘은 그 꿈과 그 해석 때문에 '번민'하였다. 그는 그 해석이 느부갓네살을 불쾌하게 할 수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말하라고 격려하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한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1798년, 끝의 때에 도래한 첫째 천사의 경고를 상징한다.

그때 이름이 벨드사살인 다니엘은 한 시간 동안 놀라 있었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였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살아, 그 꿈이나 그 해석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임하고 그 해석이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 4:19.

다니엘은 "한 시간 동안 낮을 잃었다." 여기서의 "hour"는 다니엘서에서 "hour"라는 단어가 다섯 번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며,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그것은 지식의 증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자"를 대표하는 다니엘이, 1844년 10월 22일에 조사 심판의 개시를 선포하는 첫째 천사의 경고를 전할 준비를 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다니엘의 꿈 해석에는 다가올 심판의 선포뿐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부르는 호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대표한다. 그 "한 시간"은 예언적으로 첫째 천사가 역사 속에 도착한 1798년, 곧 끝의 때에 위치하게 된다. 첫째 천사는 기원전 723년에 시작되어 북왕국을 향해 내리신 하나님의 보복의 "일곱 때"가 끝날 때인 1798년에 역사 속에 등장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징벌의 날들이니라. 그러나 그 날들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도다! 그 땅에는 큰 환난이 있고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리라.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나라로 사로잡혀 끌려갈 것이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누가복음 21:22-24.

느부갓네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 동안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야 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이 북방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는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일이 끝나는 시점을 지적하면서, 그 동일한 기간을 복수형인 '때들'('이방인의 때들')이라고 부른다.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며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니,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 누가복음 21:24.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방인들이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때가 단순히 1,260년으로 치칭되었는데, 이는 그저 교황권의 박해 기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2, 3.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준 경고의 메시지는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다. 그 경고 메시지의 도착은 상징적으로 1798년으로 제시되는데, 그때가 다가오는 조사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첫째 천사가 도착한 때였다.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것으로 예언된 심판은 4장에서 'hour'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된 대목에서 일어났다.

이 모든 일이 왕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다. 열두 달이 지난 끝에 그는 바벨론 나라의 왕궁을 거닐고 있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왕궁으로 삼으려고, 또 내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건설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오 왕 느부갓네살아, 너에게

말하노니, 왕국이 네게서 떠났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사람들 가운데서 쫓아낼 것이요, 네 거처는 들의 짐승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너로 소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네가 알기까지 일곱 때가 너를 지나리라." 바로 그 시간에 그 말씀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하여, 그가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었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그의 털이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아질 때까지 그렇게 되었다. 다니엘서 4:28-33.

예언되었던 심판은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교만하여 자신을 높였던 바로 그 "때"에 임했다. 예언되었던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조사 심판의 "때"가 시작될 때 임했다.

1844년 10월 22일의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두 부류의 예배자를 낳았는데, 그들은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과 '악한 자들'로,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로, 또한 하박국 2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 묘사되었고,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의 '시간'이 임했을 때 그가 드러낸 것과 같은 성품을 보인 자들과 대조되었다.

보라, 그의 영혼이 높아져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4.

세 개의 선 각각에 있는 두 부류는 1844년 10월 22일 그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을 때 드러났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심판의 때'가 상징하는 바이다. 1798년은 '일곱 때'의 '첫째' 진노가 끝난 때였으며, 그때 교황권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아 더 이상 번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왕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크게 하며,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참람한 말을 할 것이요, 진노가 끝날 때까지 형통하리니, 이는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임이라. 다니엘 11:36.

1844년은 '마지막' 진노의 끝이었다: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때에 무엇이 일어날지를 네게 알리리라. 이는 정한 때에 그 끝이 이르리라. 다니엘 8:19.

다니엘서 4장에서 "시간"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798년을 가리킨다. 이는 이스라엘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일곱 때" 분노 중 "첫째"의 끝이었고, "끝의 때"에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었으며, "날들의 끝"에 느부갓네살의 "일곱 때"가 끝난 것이었다.

다니엘서 4장에서 '시간'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사용은 1844년을 가리키는데, 이는 유다 남왕국에 대한 '일곱 때'의 '마지막' 진노가 끝난 때였다. 또한 조사 심판이 도래했고, 느부갓네살의 개인적 심판이 임했다.

제1장은 세 단계의 시험 과정의 역사를 밝히고, 1840년 8월 11일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권능을 받은 때를 표시한다. 제4장은 1798년 종말의 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도착했음을 나타내며, 제1장과 겹쳐 보아야 한다. 제4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과 임박한 심판에 대한 그 경고를 강조하고, 1844년 10월 22일과 셋째 천사의 기별의 도착을 표시한다.

그것들은 함께 재림주의의 시작뿐 아니라 미국의 시작도 나타낸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또한 재림주의 종말기 역사와 미국의 종말기 역사도 다룬다. 5장과 벨사살의 증언 또한 그 첫 세 장과 부합한다.

제1장은 제4장과 짝을 이루어, 첫째 천사의 운동과 1798년 종말의 때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을 때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때 봉인이 풀린 그 메시지는 올라이 강의 환상으로 상징되며, 이는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담긴 지식의 증가를 나타낸다.

벨사살 왕 통치 셋째 해에, 처음에 내게 보였던 것 후에, 나 곧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보니 내가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 궁전에 있었고, 또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내가 올라이 강가에 있었다. 다니엘 8:1, 2.

1장부터 3장까지는 5장과 연계되어 세 번째 천사의 운동과 1989년에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렸을 때의 역사를 나타낸다. 그때 봉인이 풀린 메시지는 히데겔 강의 환상으로 상징되며, 그 환상은 10장, 11장, 12장에 담긴 지식의 증가를 나타낸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그 큰 강, 곧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에. 다니엘 10:4.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계보에 대한 고찰을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는 우리 사역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로마 권세와 교황권에 관하여는 어떤 부분에서는 덜 말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바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성령께서는 예언을 주심에 있어서도, 묘사된 사건들에 있어서도, 인간 도구는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야 하며,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모든 일을 그렇게 안배하셨다.

다니엘서를 읽으라. 그곳에 묘사된 왕국들의 역사를 조목조목 상기하라. 정치가들, 의회들, 강력한 군대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사람의 교만을 낮추시고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엮드리게 하셨는지 보라.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으로 나타낸다. 선지자의 환상 속에서 그분은 한 강력한 통치자를 끌어내리고 다른 이를 세우시는 모습으로 보이신다. 그분은 우주의 군주, 곧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 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신다—옛적부터 계신 이, 살아 계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며, 현재의 통치자요, 미래를 계시하시는 분. 사람이 헛됨 가운데 자기 영혼을 높일 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연약하며,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그르치기 쉬우며, 얼마나 죄 있는지를 읽고 깨달으라.

성령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 곧 살아 계신 하나님께—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께—시선을 돌리게 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통치권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사야 9:6].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빛은 특히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다. 그가 시날의 큰 강들인 올라이와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들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예언된 모든 일들이 머지않아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다니엘의 예언이 주어졌을 당시 유대 민족의 형편을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성전 봉사는 중단되었다. 그들의 종교는 희생 제도의 의식들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겉모습을 절대시하는 동안 참된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예배는 이방의 전통과 관습으로 오염되었고, 희생 제사를 행하면서도 그림자를 넘어 실체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들은 인류의 죄를 위한 참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주께서는 겉의 의식이 그들의 종교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백성을 포로로 가게 하시고 성전 봉사를 중지시키셨다. 그들의 원칙과 관행은 이방주의로부터 정화되어야 했다. 마음의 봉사가 회복되도록 의식적 봉사는 중단되었다. 영적인 것이 드러나도록 외적인 영광이 거두어졌다.” Manuscript Releases, 제16권, 333, 334쪽.